



## John 4

요한복음 4  
Tape #8072  
By Chuck Smith

이제 요한복음 제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요 4:1).

여러분은 제3장 마지막 부분을 기억할 것이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했다(요 3:26).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요 3:30).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후 세례 요한과 흡사하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 실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께로 왔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계시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 즉 이 복음서의 필자는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다음과 같이 달았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4:2).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자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4:3)

그분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아시고는 유대를 떠나셨다(4:3).

그분은 지금은 저들과 맞부딪치고 싶지 않으셨기에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다. 그런데 먼저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하셨다(4:3,4).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에 들리셔야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는 경로는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던 길이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이 아주 컸기 때문이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자 아수르는 그곳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대신 타 민족을 데려와서 북왕국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그러나 북왕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해온 사람들은 짐승에 의해 유린되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하였다: 이전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규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몇몇 유대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북왕국은 혼혈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서로 통혼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족속으로 취급했다.

그 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북왕국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도와주려고 하였다. 성전 재건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의 제의를

거절했다.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양측 사이에는 사그러들지 않는 적개심이 짝뜨게 되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아주 나빠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움을 주겠다는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 당하자 퇴박맞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에 예배의 장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만의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리심 산이 참된 성전 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심 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심 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금은 약 200명의 사마리아인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너무도 잦은 통혼이 있어 왔기에 그들 대부분은 정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유월절이면 그리심 산에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곤 한다.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은 노골적인 적대감에서 시작되었다.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썼다. 그들은 요단 강으로 내려가 강을 건너 요단 강 반대 편으로 갔다가 여리고 근처에서 다시 요단 강을 건넌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갖가지 절기에 참석하곤 했다.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동일한 길을 따라서 갔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통해 지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시도하지 않던 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생수에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나 보기 위해서였다.

그분 일행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오늘날에는 세겜이라 불린다]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4:5).

창세기 제33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부터 땅 한 조각을 사서 요셉에게 준 일이 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유골에 대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뼈를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가서 조상의 땅에다 묻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은 요셉의 시신을 갖다가 본문에 나오는 그 땅에다 묻었던 것이다. 그 땅은 오늘날 세겜이라 불리는 땅으로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다. 그 우물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 시쯤 되었더라(4:6).

우물 아구에는 보통 높이가 24인치 정도 되는 돌을 엮어 놓았었는데, 그 돌 중앙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 두레박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야곱의 우물 아구도 높이가 24인치나 되는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물론 거기에 가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야곱의 우물이 나타나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나 예수님은 여행 길에 지치신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행에 지치신 것을 보면, 이 우물은 예수님의 인간적 본질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때는 6시쯤 되었다(4:6).

히브리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점심 때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로마 시간이었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정오 때부터 시간을 계산했으므로 오후 6시쯤이 되었을 것이다. 어느 것이 적당한 해석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것이 좋게 보이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라.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다.) (4:7,8).

요한의 글 쓰는 방식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써 내려가는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 약간의 주석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이야기를 오랜 후에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써 내려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주석을 가미했을 것이다. 여기서의 주석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이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4:9)?

요한은 다시 한 번 여기서 약간의 주석을 삽입한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4:9).

이로써, 우리는 그 여인이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꾸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4:10).

야곱의 우물은 샘이 아니었다. 그것은 빗물이 스며들어 우물을 형성한 것으로서 당시 전형적인 우물이었다. 야곱이 판 우물에는 고여 있던 물이 스며들었던 것이다. 그 우물은 깊이가 100피트나 되기 때문에 물을 길으려면 두레박을 상당히 깊이 내려야 하였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샘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물, 신선한 샘물을 의미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4:11)?

여기서, 예수님께서서 통상적인 수준 즉 물질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게 흥미롭다. 먼저 마실 물 한 그릇을 구하셨다. 그것은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듯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이 익히 아는 수준에서 출발하신 후 즉시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시곤 하였다. 그분이 생수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분은 이미 그녀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파악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단 말인가? 이 우물은 깊은데. 게다가 물을 길어 도구를 하나도 가지지 않으시고서 말이다. 도대체 어디서 그 생수를 가져다 주실 거란 말인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4:12)?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4:13).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야심도 초월하는

말씀이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취하거나 달성하고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앞으로 돌진해 나아가는가?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목적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으면 여러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위에다 이렇게 써 놓도록 하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질 세계에는 아니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치는 그 깊고도 절박한 외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의 공허를 메우려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다시 목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말 몇 마디를 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들어 보자. 만일 도널드 트럼프가 가졌던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도널드는 자기 인생의 공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쾌락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쾌락을 얻는 순간 실망이 몰아 닥쳤다. 그 목표는 추구하는 동안만 신이 났었을 뿐이다. 오직 그런 과정상의 쾌락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테드 터너도 그와 흡사한 말을 했다: 추구하는 일은 신이 나지만 일단 성취하고 나면 실망스럽다. 성공은 그것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법이다. 그것은 성공을 성취하고자 애쓰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성취하고 나면 실망만 남을 뿐이다. 그것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심적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물을 마셔라. 그러나 너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4).

흥미 있는 얘기다. 이제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서셨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쯤은 영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분은 흥미 있는 분이시다. 그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는 어려웠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수수께끼였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그분이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물을 네가 마신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것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우물과 같은 샘이 될 것이니라. 어쨌든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좇아가 보기로 하였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4:15).

제가 그 물을 좀 먹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데리고 오라. 그녀는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4:16-18).

갑자기 가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보이고 싶어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들이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우리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여인 역시 가면을 쓰고 있었으나, 갑자기 그녀는 이 분을 속일 수는 없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내 맘속에 공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내게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내 속에는 커다란 갈증이 있다. 내 인생에서는 성취된 것이 없다. 공허만이 있을 뿐이다. 이분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그 공허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과장된 인간 모습이 아닌 실제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이분을 우롱할 수는 없었다.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분은 내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계시구나. 그녀가 가면이 벗어 던지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제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는 증거다.

그녀는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4:19-22).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종교가 있었다. 아니, 그들은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 “너희는 너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에 비하여 유대인은 최소한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좇고 있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4:23).

지금 바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4:24).

제3장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 관원, 유대인의 선생, 구약 성서를 좇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밝히 아는 자였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3:3).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네가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영이 살아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월한 삼위일체이시다---성부, 성자, 성령. 인간은 열등한 삼위일체이다--영, 혼, 육.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은 영의 영역에서이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영의 영역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살아 일어나게 되기 전에는 향유할 수가 없는 관계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그분을 믿을 때 진행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자연인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해야 분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

여기 사회,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한 사람은 끔찍한 평을 듣고 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혼인 서약을 어긴 사람이었다. 그것도 다섯 번씩이나 어긴 후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사회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모두 같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이 단어도 요한이 첨가한 사적인 주석이다]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4:25).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크 이스트만이 금요일 밤에 와서 얘기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거의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성서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거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많은 랍비들이 그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스트만이 그 글을 인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강림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멸시와 거부를 당하며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성구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다른 성구들은 메시아의 영광스런 통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구절들에게 더 맘이 끌렸던 것이다.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능력, 난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노라”(빌 3:10).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설 것이다: 오, 아닙니다. 아니예요. 능력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런 식으로 권능만을 원하고 있었다. 로마 정부의 붕괴만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는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도달하는 통로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저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4:26).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처럼 초라한 여인에게 계시하시다니 말이다. 그렇듯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다니 말이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었으며 지금도 어느 남자와 간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인이게 말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어떤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신 사건을 기록한 첫 번째의 구절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적은 있다. 나dana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메시아이신 게 분명합니다”(요 1:49). 빌립은 “와서 보라(요 1:46)”고 말했다. 이 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이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신 적은 없었다.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갖가지 의견을 전해드리자 그분은 물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그분은 베드로야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긍정하시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신 이는 나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이니라, 즉 메시아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4:27).

나는 그들이 분명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확신한다. 전통에 따르면 랍비는 혼자 있는 여인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는 법이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금해된 사항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쇼크를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말이다. 랍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왜 저런 여인과 얘기를 하시나이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4:28).

그녀는 이제 물을 얻었다. 그녀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4:28).

내가 보기에 동네 여자들은 그녀와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동리의 모든 여지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비쳐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자들은 다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4:29).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을 것이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4:29-31).

마침내 우리가 성안으로 들어가서 저 미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 이 음식을 사왔습니다. 와서 잡수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4:32-34).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충만한 만족을 주는 떡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할 것이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인류를 구속하는 일을 할 것이니라. 그분의 이 말씀은 흥미롭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왔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사함과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기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깨뜨린 것은 바로 죄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으며, 사람을 다시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일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다: “다 이루었다”(요 19:30). 구속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뜻이다. 그분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기에,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께 이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죄를 용서 받게 되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4:35).

우리는 가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오 이런, 이 지역에는 할 일이 많이 있구나. 곡식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려면 4개월이나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눈을 들어 보라 고 말씀하신다. 눈을 들어 들판을 내다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월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당시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이 도성으로부터 나와 들판을 지나서 예수께로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세 겹 사람들이 쓴 흰 두건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보라 밭이 이미 희어져 추구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께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밭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4:36,37).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7). 그러므로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이도 아무 것도 아니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를 불러 씨를 뿌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심겨진 씨의 결과를 보지 못할는지 모른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물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수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빌리 그래함의 대중 집회에 참석하여 보고는 야아 이걸 대단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저 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간증을 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복음 집회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물을 주는 일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리 그래함이 그것을 거두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지금 투망으로 훑듯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레그 로리도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애너하임에서 그의 집회가 열릴 것이다.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씨를 뿌리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그들에게 간증했을 것이다. 그들은 죽 여러분을 지켜보아 왔으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 보고 집회에 참석하자고 권할 경우 그들은 아마도 거기에 순응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참석할 것이다. 우리 가서 저녁이나 함께 한 후에 복음 집회에 참석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일이 더 부드럽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흥분 시키는 것은 초청을 한 친구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저 단 앞에 서게 되는 일이다. 그것은 얼마나 축복 된 일이겠는가. 한 사람이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기뻐하는 것이다. 수확이 거두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즐거울 것이다. 뿌려진 씨가 거둬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말이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한다.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한다.

예수님은 말씀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4:38).

또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게 된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4:39).

그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단합니다. 이 분이 메시아일 겁니다. 그들은 그녀의 증거를 믿었으며 그녀의 간증을 믿었다.

그녀의 말은 이랬다: 그분이 내가 행한 일을 모두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 하였더라(4:39-42).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 때

많은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미 그를 위해 씨가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장차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길이 닦여 있었던 것이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동리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4:43,44).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을 갈릴리 지역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유대 지역을 가리킨 것임이 틀림없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그분이 유대를 떠나신 것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떠나신 것은 그 충돌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다. 유대는 그분 자신의 고향이었다. 그분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등록된 호적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지금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물론 그분은 거기서 자라나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된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4:45).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유대 지역에 대한 언급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분이 갈릴리로 들어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 내려가 계셨던 일과 그가 거기서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4:46).

이 마을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가버나움에서는 30마일 아니 2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다. 그분은 다시 가나로 오셨는데, 이곳은 그분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으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곳이다.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그분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 사정을 말씀 드렸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되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4:46).

왕의 신하를 회랍어로 바실리코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헤롯 궁정의 대신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구사’라는 설도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사의 아내 요안나 얘기가 나온다. 그녀는 예수께서 시골 동리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동행했던 여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예비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고관에게는 딱한 사정이 하나 있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4:46).

가버나움은 거기서 대략 27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4:47).

이 사람의 처지는 절망적이었다.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기적과 병 고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그 아들이 낫게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4:48).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청을 일단 거절하신 셈이었다. 네가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니라.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은 얕박한 신앙이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요 2:23,24).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을 보았기에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굳건한 기초이다. 우리는 경험에 기초해서는 강건한 집을 세울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런 기초는 연약해서 비바람이 불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다 집을 세워야만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런 것보다는 더 깊은 신앙을 찾고 계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사실에 기초한 신앙을 찾고자 하셨던 것이다.

느낌은 변할 수가 있다. 느낌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은 오늘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며 대단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다가도 내일은 비참하고 좌절된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만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런 가정이 성립된다: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내일은 아마도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비참하고 낙담하고 좌절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정에 기초해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다 신앙을 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변할 것이다. 여러분은 신앙을 경험 위에 쌓을 수는 없다.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거짓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4:49).

다시 한 번 그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27마일을 걸어오셔서 제 아들을 만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4:50).

기어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쌓을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자기 믿음을 건축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전화가 없었다. 그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여보 우리 내가 건강해 졌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신앙이 언제나 서 있어야 하는 기초인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4:50).

이것은 도전이다. 그는 그 도전에 응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4:51,52).

그는 아마도 아들의 치료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언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되기 시작했는가? 언제 그가 고쳐지기 시작했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어제 제 칠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4:52).

오후 한 시를 말한다.

아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4:53).

그의 믿음은 이제 그의 모든 가족에게로 전파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4:54).

요한은 이렇게 선택된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흥미 있는 기적이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27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즉시 효과를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리가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분이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저기 27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그 믿음의 결과로 한 역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 아들은 치료를 받았다.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열이 떠나갔던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노라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와 여러분 주변의 목마른 사람들을 축이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란다.